

사·부·대·중

스님과 신도 사이

드라마 '아름다'가 끝이 났다. 이 드라마의 재미는 지식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감칠맛나는 대사였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지식인들은 쉬운 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온갖 철학적인 용어와 사회학적인 용어들을 동원해서 이해하기 힘들게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늘 자기변명에 급급한 말들이라는 데 아이러니가 있었다.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회 연구실

회와, '아름다'로 대표되는 일반인 사이의 괴리는 일부 스님들과 신도 사이의 그것으로 비교될 수 있다. '아름다'는 늘 제 몫 시켜야 할 사람으로 보는 '장진구' 처럼 스님들은 신도를 가르쳐 깨우쳐야 할 대상으로만 이해한다.

특히 신도들, 또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법문을 하는 스님은 '장진구하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 아무리 법문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앞뒤 맥락 없이 던져지는 어려운 한자어들은 암호처럼 들릴 수 있다. 속재를 통해야 진체에 도달할 수 있다는데 직접 진체의 언어들이 펼쳐지니 그것을 받아 보는 '속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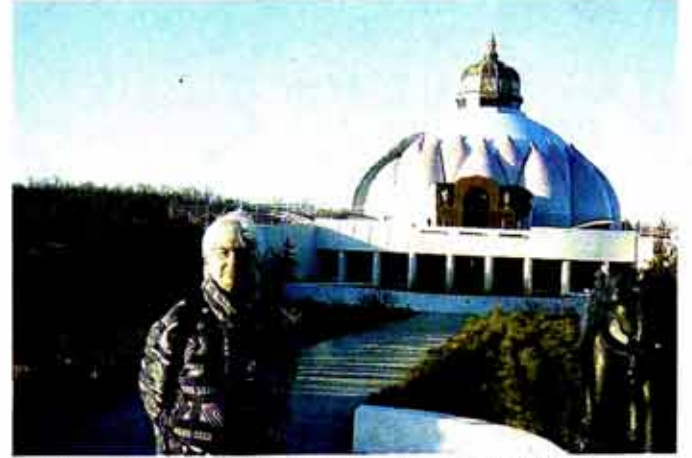
'신은 산, 물은 풀', '자기를 바로 봅시다' 등 쉬운 우리말로 된 법어를 발표하셨던 전 조계종 종정 상철 큰스님의 생각이 기쁜 마음으로 조성되어 그 회향법회가 30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장진구한' 일들이 없는 것일까? 드라마의 '장진구'로 대표되는 지식인 사

입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말과 달리 속은 시궁창 같고, 실력도 없으면서 자기보다 학벌이든 무엇이든 외형적으로 처진 듯하면 대놓고 무시하는 속물 지식인, 추구하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 뿐이지만 그걸 이루는 방법은 인맥이나 학맥을 동원한 줄대기와 뇌물, 아부밖에 없다. 이것을 드라마에서는 '장진구'라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따 '장진구하다'라는 동사형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불교계에는 이런 '장진구한' 일들이 없는 것일까? 드라마의 '장진구'로 대표되는 지식인 사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은 트윈오크스 주민들은 매주 1회 사투스빌에서 모임을 갖고 사회운동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12개 종교인들의 수행공동체인 요가빌의 호터스성소. 각 종교의 상징과 교조, 경전들이 모셔져 있다.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 '美 공동체마을 생활체험' 보고서

“더불어 사는 삶, 아름다운 삶”

오늘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운동의 하나인 공동체운동은 생태주의의 동가, 페미니스트, 종교운동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17일 서울 정호회 강당에서 두 달간 미국의 주요 공동체마을에서 생활체험을 하고 돌아온 유정길 사무국장의 보고회를 가졌다. '공동체 주민들은 공동체운동의 역사를 언급할때, 승가공동체를 가장 먼저 말했다'는 유정길 국장은 '공동체 탐방을 통해, 공동체운동은 정보와 불국토란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노력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보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수행공동체-요가빌

12개 종교 이타적 어울림
“모든 종교 숭배의 대상”

스리 스와미 사치다난다(Sri Swami Sachidananda)가 이끄는 수행공동체인 요가빌(Yaogaville)의 호터스성소는 연꽃모양으로 지어져 있다. 풍금계 12개 종교의 상징과 교조, 그리고 경전들이 모셔져 있다. 12개의 종교별 교도 신도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아프리카종교 시크교 자이나교 인디언주술 유교 등 모두가 인류에게 깨달음과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공통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 이념을 내세우는 이곳은 사원에 여러 성인들의 사진이 걸려있으며 예배를 보기 전에 경(Chant)을 읽는다. 뒷부분에는 여러 종교의 주벽을 의우는 대목이 나온다. 모든 종교가 숭배의 대상으로서, 이곳의 모토는 '진리는 하나이다. 단지 많은 길이 있을 뿐'이다.

이곳은 하타(Hatha)요가와 라자(Raja)요가 카르디아(Cardiac)요가를 통합해서 수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사치다난다 이외에 주황색 가사를 입은 수행하는 스와미가 16명 있다.

■도시공동체-카나스

사회운동가들 개방적 삶
‘공동적업 마음나누기’

뉴욕 스테튼 섬에 있는 가나스(Canastota Strong Motivation)는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만든 도시공동체로서 재활용매장 4곳

을 운영하여 100여명이 함께 살고 있다. 아침 7시30분부터 10시까지 일예 대한 마음나누기를 하고 6시30분까지 작업을 하고 사람들끼리 친목의 시간을 갖는다.

가나공동체는 개방적 대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실험장이다. 이것은 닫혀진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며, 반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집중하여 완전히 개방을 한다. 이의 목적은 갈등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The Foundation for Feedback Learning은 1978년에 시작했다. 1979년에 6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75명으로 증가하여 큰 가족을 이루었다.

■가톨릭일꾼공동체

행려병자·홀리스 등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맨하탄의 남쪽끝에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이들의 공동체인 가톨릭일꾼 공동체가 있다. 이곳에는 성요셉하우스와 매리하우스가 있으며, 이곳에서 일을 돕는 사람들과 행려병자와 홀리스들이 함께 50여명이 살고 있다. 도로시데이(Dorothy Day)와 피터모린(Peter Maurin)에 의해 시작된 공동체로 미국 전역에 약 150여개의 공동체가 있다.

인격주의, 팔중심적인 사회, 녹색혁명, 비폭력, 손으로 하는 육체노동, 자발적인 가난, 그리고 농경공동체사회 등이 가톨릭일꾼운동의 철학이자 기본방침이다.

뉴욕주변에는 브루드하트프리는 아주 성공적인 기독교공동체도 있다.

김재경 기자
(gkkm@buddhapia.com)

■살맛나는 공동체-트윈오크스

700여 공동체 서로 연결
전형적 생태마을 운영

"낮에는 열심히 농사짓고 그물집대를 짜고, 두부도 만든다. 그리고 저녁식사 후에는 언제나 마을사람들과 노래와 놀이, 춤추기와 토론회, 그리고 다양한 축제가 벌어진다. 조용히 연못가를 거닐기도 하고 조그만 강을 따라 카누타기를 즐긴다. 저녁 무렵에는 언덕 위 나무에 매어있는 그물집대에 누워 반짝이는 별들을 쳐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기도 한다. 100여명이 함께 밥을 먹고, 탁구 등의 게임을 하며 여가를 보기도 한다."

이 곳은 유토피아적인 이상사회가 아니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의 일부이다. 미국 버지니아의 주도(州都)인 리치먼드 근처에 있는 트윈오크스 공동체(Twin Oaks Community)이다.

미국의 경우 '공동체 편람'에 나오는 공동체만해도 약 700여개가 된다. 이 중 대표적인 공동체인 트윈오크스는 반문화운동이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등 서구에 한창 풍미하던 시절 67년에 시작했다. 이

들은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B. F. 스키너의 <월덴부(Walden 2)>를 읽고 감동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공동체는 미국 전역 700여 공동체를 네트워크하는 구심점인 FIC (Fellowship of Intentional Community)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30년간 전형적인 생태마을로서 대안적 에너지와 새로운 인간관계, 어린이 교육 등이 시도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곳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미국의 반문화운동, 학생운동과 히피의 세대들이다.

트윈오크스는 20여개의 크고 작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1,820만 평방미터의 땅을 갖고 있는 공동체이다. 모든 건물은 태양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건물에도 환경을 고려하여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다. 자원 재활용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 채식은 위주로 하고 있으며, 두부를 생산하여 팔고 있다.

이 곳의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한다. 제도교육은 아이들의 인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정길
사무국장

목탁소리

반가운 동반사회

이경숙 (취재1부 부장)

종연스님과 법장스님이 17일 전격 동반사회행에 따라 태고종의 내분이 일단 마무리됐다. 주위의 우려처럼 물리적인 충돌이나 중징계 등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결국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찾아낸 데 대해 "과연 정통종단답게 대화로써 해결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칭찬을 들을만 했다. 사실 불교계 최대 축제의 초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종단이 둘로 쪼개져 종도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결국 공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위기감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평배해 있었을 것이다.

십지 않은 결정을 흔쾌히 내린 종연스님에게 박수를 보낸다. 십여년 전부터 성주암의 사찰재정공개를 어느 사찰보다도 먼저 실시한 일에서 주지하다시피 종연스님은 참신한 이미지로, 변화와 개혁을 염망하는 젊은 스님들의 추대와 지지로 총무원장에 당선돼 기대를 한몸에 모았다. 따라서 원장으로 자신의 포부를 채 펼쳐보이기도 전에 자질시비가 일어나 물러나게 됐으

니 당사자로서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많았을텐데도 모든 것을 깨끗이 접고 용단을 내려 화합의 단초를 마련한 것 대해 '수행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높이 사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두 총무원장이 물러났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태고종은 앞으로의 행보가 더 관심거리이다. 여법한 선거절차에 의해, 종단의 수장이 될 덕망과 자격, 능력을 지닌 적합한 인물이 선출되고 새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이번엔 드러난 종단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종단의 총력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에서 '7인방' 스님들을 비롯 태고종단 전체가 마음을 합해 원만히 해결해 간다면 이번의 분규사태는 비운의 땅이 굳어지듯 종단을 위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단화합 차원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종연스님과 법장스님의 대승적인 희생심이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길 기대하며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태고종은 명심했으면 한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覺
雪山玉石으로造成한因瑞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입니다.
二五〇五年二月二十一日
小松 西翁謹書



■주진서
고불승림 방장 시용 큰스님